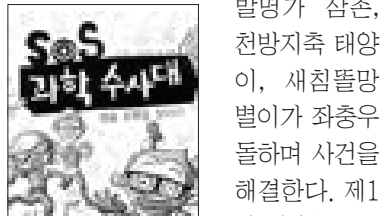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나! =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은 어디에 있을까? 프랑크 작가 위베르...

〈맑은 기쁨·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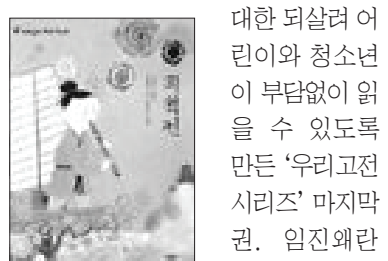
▲SOS 과학 수사대(제1권)=과짜 발명가 삼촌...



을 찾아라!에는 초등학교생들이 알아야 할 감각기관인 눈, 코, 귀, 입에 관한...

〈아이즐·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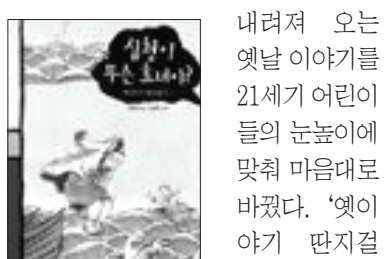
▲최적전 =원전의 뜻과 느낌을 최대한 되살려...



돌이 속에서 흠여졌다 이십여 년만에 다시 만난 실존인물 최척과 육영...

〈창비·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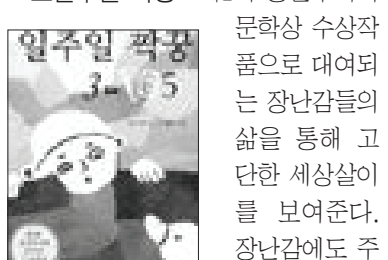
▲심청이 무슨 호녀냐 =구전으로 내려져...



가 말해주듯 읽는 사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바꿔 읽는 재미가 있다.

〈바람의 아이들·7천800원〉

▲일주일 짝꿍 =제1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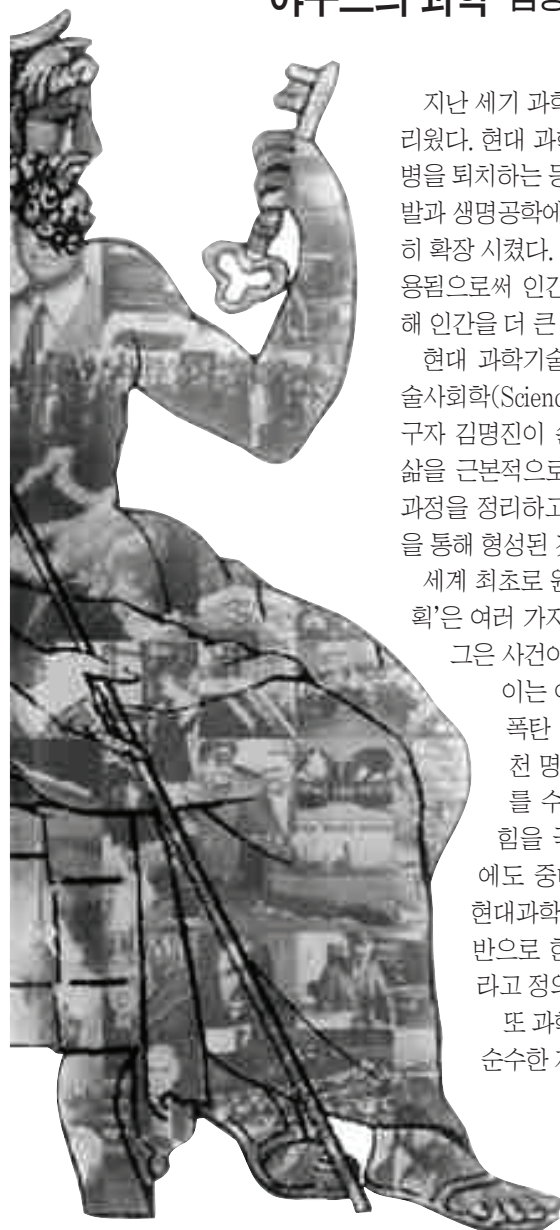


살 권리가 있고 자기만을 아껴 줄 짝꿍을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신선하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선과 악' 현대과학의 딜레마

아누스의 과학 김명진 지음



지난 세기 과학은 인류에게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드리웠다. 현대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병을...

현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해온 과학기술사회학(STS) 연구자 김명진이 쓴 '아누스의 과학'은 20세기 인류의 삶을...

이제는 현대과학을 선과 악 두 모습을 가진 아누스에 비유하고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 아누스 상.

이제는 현대과학을 선과 악 두 모습을 가진 아누스에 비유하고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 아누스 상.



분야의 과학인 우주개발과 천문학, 지구과학, 생명공학 등의 발전도 가져왔다.

특히 현대 환경운동을 대동시킨 기폭제가 된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1962년)과 DDT 등 합성살충제 논란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를 즉 지구온난화, 유전자 변이, 환경호르몬 등을 고찰하면서 이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21세기의 과학기술-과학의 상업화와 새로운 위험'에서 저자는 "과학기술의 미래는 저절로 장밋빛으로 변하거나 필연적으로 암울한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 과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과 냉전은 순수한 자연적 '발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저자는 현대과학을 선과 악 두 모습을 가진 아누스에 비유하고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 아누스 상.

〈사계절·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뉴욕의 미술·패션에 대한 이야기

취향 박상미 지음



2004년 발표한 '뉴욕커'를 통해 뉴욕의 예술과 사람들

10년 넘게 뉴욕에 머물고 있는 저자 박씨는 이번 책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인 미술과 패션

저자는 취향은 어떻게 가지관이나 분별력과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며 지켜지는지, 취향과 미적 경험이나 영감은 어떤 관계인지 많은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미음출판·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을 움직이게 하는 '조종의 원리'

... 인간 조종법 로베르 뱅상 줄 지음



뉴군가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프랑스 사회심리학 전문가인 로베르 뱅상 줄(엑상프로방스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쓴 '정직한 사람을 위한 인간 조종법'

책은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조종'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공리·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구리 료헤이 '우동 한 그릇'

가로수의 노란 은행잎들이 마치 금단추처럼 반짝이더니 어느새 길바닥에 죄 떨어지고 말았다.

이맘때면 한 해도 거의 기울고 우리는 스스로 살아온 날들을 뒤 돌아보게 된다.

좋은 책을 골라 읽는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가장 좋은 책은 흥미가 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내가 읽어서 크게 감명을 받았던 책은 이광수의 '꿈'과 도스토예

가난이 주는 따뜻한 감동



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구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 등이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꿈'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나에게 사람의 진지함과 삶의 성실성을 깨우쳐주었고, 십여년전에 읽었던 '우동 한 그릇'은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었던 따뜻한 인정과 감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구리 료헤이의 동화 '우동 한 그릇'은 내용이지만 감동에 굶주린 현대인에게 따뜻한 눈물을 선물해 줄 만한 책이다.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설날 그림날 밤 우동집 북해정에서 여섯 살, 열 살쯤의 두 아들과 철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우동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았다.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자들에게 매일 오만엔씩 지급해야했고 그 때문에 어렵게 생활했던 세 모자가 설날 그림날이 되면 유명한 북해정에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놓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주인은 알게 되었다.

세월이 상당히 흐른 어느 설날 그림날, 의사와 은행원이 된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나타나 우동 한 그릇을 시켰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체험한 어른들이나 가난을 모르고 자라는 요즘의 아이들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동화다.

전원범(시인·이동문학가·광주교대 교수)



한국의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국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30~40대 주부특별반 모집. 12월 1일 (주)아간반 모집.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12월 1일 개강예정. 12월 18일 (주)아간반 모집.